

中世國語 時相法の 形態範疇*

—(一){-는-}의 分布 및 資質記述—

李 承 旭

I

I.0 時制表現의 對象이 되는 세계의 현상은 特殊하다. 그것은 自然科學의 대상이 되는 物理的 세계의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話者의 知覺이라는 濾過裝置에 의해 일단 걸러져 言語化가 이루어진다는 前提에서 인식된 현상이다. 이것을 時相文法에서 흔히 狀況(situation)¹⁾이라 한다. 즉, 狀況은 실제 현상이 지각될 때의 心理的 움직임이나 論理的 判斷이 模型化되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狀況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진 것이 되고, 그 構成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우선 그에 앞서 모든 狀況은 적어도 세가지 時間的 相對的 關係에 의해 나타내지고 있다는 前提를 가진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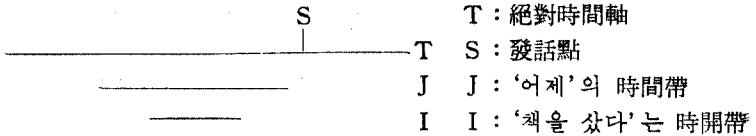
(가) 狀況이 일어나는 時間帶 I와, (나) 狀況의 生起가 화자(=觀察者)에 의해 관찰되는 觀察時間帶(視野) J²⁾, (다) 自然界的 絕對時間軸 T가 그것이다.

가형 '어제 책을 샀다' 라는 狀況의 時間構造는 다음과 같다.

* 本稿는 1984년도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해서 쓰인 報告論文임.

1) Lyons, Comrie, Mourelastos 등에 의해 최근 쓰이고 있는 用語, '事象'으로 번역되기도 함. <state, process, event>, <state, activity, performance> 또는 <state, activity, accomplishment>, <fact, event, result, action>의 總稱으로 쓰임.

2) J는 다른 用語로 狀況의 背景(background, Hintergrund) 혹은 狀況의 生起하는 世界(world), 혹은 狀況生起의 機會(occasion)이라고도 불린다. Mourelastos, A.P.D. 1981 : Events, Processes, and State; Syntax and Semantics 14, 191-212.



그런데 狀況의 시간구성과 그것의 認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 狀況과 話者(觀察者)의 관계다. 그것은 대체로 (1) 狀況이 일어난 시간과 發話點의 前後關係, (2) 狀況의 生起에 대한 前後關係 이외의 관계로 구분된다. (1)은 直線上的의 관계로서 화자의 發話點(나, 지금)을 기준으로 하는 場面內指示的(deictic)인 특성을 가지는 관계이고, (2)는 觀察點의 移動이라든가, 狀況과 觀察點의 並行關係와 같이 화자의 판단이 介入하는 관계의 것이다. 이와같은 관계를 이루는 시간구조를 해석하는 데는 그 根底에 역시 세계의 다른 時間帶를 認知해야 하는 前提가 요구되고, 그것은 각각 發話時(S), 觀察時(R), 狀況時(E)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S는 화자가 文을 발화하는 時間帶이고, R는 화자가 文內容의 狀況을 관찰(인식)한 時間帶, 그리고 E는 발화내용인 狀況이 이루어진 時間帶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S와 E는 제 3자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객관성이 있어서 時間軸 위에 자리를 표시할 수 있으나, R은 그렇지 않아 화자가 任意로 설정하는 心理的 時間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이 R은 E에 대하여 그것을 화자가 관찰·인식하는 時間帶이며, 그때 E와의 관계구성에 있어 R은 S와 함께 基準時가 될 수도 있다. 결국 R의 설정은 발화점이 아닌 또 하나의 基準時點, 즉 화자의 제 2의 觀察點을 時制構造 안에 導入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時制의 多元性을 豫告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1 시제는 보통 (1)의 관계, 즉 E를 S에 관계지워 하나의 直線 위에 각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場面內指示的인 것이라 하여³⁾ R이 직접 關與

3) Comrie(1976), p. 2. 5. Lyons(1968), p. 275~81. 時制가 時間과 關聯되는 것은 물론이나, 그것은 매우 특수한 방법에 의존된다. 즉, 그것은 deictic category를 이룬다.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해석되며, 실령 R이 관여한다는 견해라 하더라도 단순한 시제는 역시 E와 S의 관계만으로 구조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구조에서 R은 R=E 혹은 R=S 관계의 $\begin{array}{c} | \\ \text{E} \\ | \\ \text{R} \end{array} \begin{array}{c} | \\ \text{S} \\ | \\ \text{R} \end{array}$, $\begin{array}{c} | \\ \text{E} \\ | \\ \text{R} \end{array} \begin{array}{c} | \\ \text{S} \\ | \\ \text{R} \end{array}$ 가 되거나

S=R=E의 $\begin{array}{c} | \\ \text{S} \\ | \\ \text{R} \\ | \\ \text{E} \end{array}$ 와 같은 관계에 있게 되어 이들 세 時點은 반드시

다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R의 위치는 E 혹은 S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와 同時性을 가지는 관계의 것으로 想定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S=R=E의 것일 때 우리는 ‘現在’라는 時制를 부여하게 되고, R=E, R=S일 경우 각각 S를 기준한 E의 前後關係에 따라 時制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이럴 경우 R의 도입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E, R, S가 비록 一直線上에 놓이는 관계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同時性이 없을 경우, E, R, S의 관계는 각기 다른 자리를 잡는 $\begin{array}{c} | \\ \text{E} \\ | \\ \text{R} \\ | \\ \text{S} \end{array}$ 의 三點構造가 될 것이고, 이와같은 구조는 英語의 과거완료(I had seen John)와 같은 시제를 定義하는 데는 有效해서 R의 도입은 單元的인 直線構造에 있어서도 그 이유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視角에서 볼 때 理論적으로는 이 三點의 前後關係와 이들간의 同時性으로 관계지워지는 구조는 13종에⁴⁾ 이르며, 그러나 그 중 어느 것들이 언어표현으로 가능하여 구별되는지, 또는 어느 언어가 몇가지의 어떤 구조의 것을 채택하는지는 순전히 각 언어들의 고유특성의 문제가 된다.

基本時制의 구조는 S, E의 2點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비교적 객관적인 단순성의 것이었으나(R을 도입했을 경우도 결과는 같다), 어떤 細部の 局

4) Reichenbach(1947)는 時間軸上的 SRE의 構造로서 時制體系를 考察했으며, 3點의 前後關係와 同時性의 關係에서 다음과 같은 13종의 構造를 들었다. E>R>S, E=R>S, R>E>S, R>S>E, R>S=E, E>S=R, S=R=E, S=R>E, S>E>R, S=E>R, E>S>R, S>R=E, S>R>E. >는 前後關係(왼쪽이 先時性), =는 同時性을 나타냄.

면의 시간과악은 화자가狀況을 판단하는 主觀的 觀點의 도입이 있어야 했고, 그리하여 R이 관여하는 3點構造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되었든, 하나의 時間軸(T) 위에서 하나의 基準時(S)에 의해 정의되고 前後 또는 同時의 관계로 해석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그것은 모두 一元的(單軸)인 구조다.

그런데 각 언어의 시제체계(一元的이라고 하는 언어의 구조해석에 있어서도 視點에 따라서는)가 반드시 이런 視點이나 視角만으로 기술되어야 할 當爲性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어의 체제기술에서 여기에 매일 이유는 없으나, 전적으로 排除할 문제도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의 논의⁵⁾도 있었거니와 대체로 그 歸結은 국어의 구조해석이 이런 관계의 모형만으로는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視角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2)의 관계모형을 살피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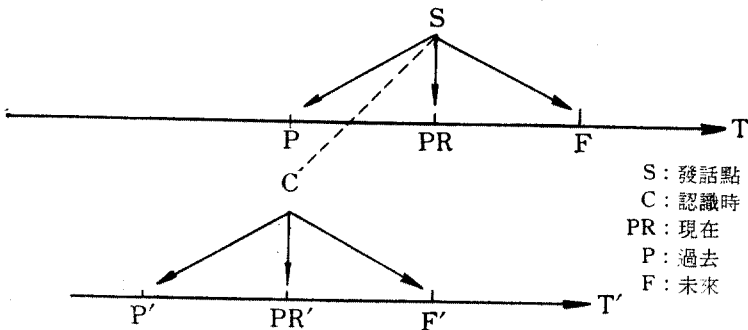
I.2 I.0에서 제기한 (2)의 관계모형이란 觀察點의 移動 또는 狀況과 관찰점의 並行關係를 가지는 구조로서 單軸上에 자리하는 발화점과 狀況의 先後 관계에 의해 정의되고 해석되지 않는 것을 이른다. 이것은 T軸위에서 S를 기준한 先後관계의 구조와 그 T軸에 並行하는 또 하나의 T'軸에서 S이외의 별도의 기준시를 가지는 구조의 체제를 뜻한다. 다시말해서 같은 時間軸上的 先後관계가 아니라 平行關係를 이루는 多軸體系라는 것이고, 이 경우 T'軸의 기준시는 곧 R이 된다. 이 R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單軸體系의 3點構造에서 E, S와 對立하는 別項의 時點으로 도입했던 것이지만, T'軸의 기준시로 될 때 R의 概念 자체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관계구조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 결국 T軸上的 관계는 S를 기준점이 되어 여기에 E가 先後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T'軸上的 관계는 R을 기준으로 하는 E의 先後관계인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T와 T'를 잇는 S와 R의 관계다. 위에서 T, T'의 두軸에 자리한 R을 다만 單

5) 韓東完(1984).

軸上の 것을 多軸으로 옮기는 데 따라 移動시킨 것으로 보았지만, 그것은 두 체계의 기본모형을 對比하는 문제일뿐 S, E와 대립하는 話者(觀察者) 介入의 資質을 共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의 時的 內容의 性質은 다르다.

T軸의 R은 E나 S가 時點(time point)으로 표시되는데 대해 상대적인 길이를 가지는 時幅(time period)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R=E$ 혹은 $R=S$ 를 同時性으로 規定했던 것까지도 엄밀한 뜻에서 R의 時幅 속에 E나 S의 時點이 內包되는 관계지, 合同하는 同時性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前項에서 狀況의 배경을 이루는 觀察時間帶를 설정하여 그것을 J로 표시했던 것과 맞먹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時間限定語類가 지시하는 내용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그러나, T'軸上の R은 관찰된 狀況의 배경이나 어떤 時幅을 가지는 개념이 아니다. S와 같은 기준시점의 位置를 잡는 동시에 S와의 관계는 비록 並行關係에 있는 시간구조지만 兩軸을 統合하는 기능은 역시 T軸의 S가 主導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R은 반드시 $R>S$ 의 관계가 전제된 것이다. 그러므로 單軸의 3點構造에 있는 R과는 辨別되어야 할 조건이 있으며, 굳이 관련을 고집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여 C(認識時, Cognition time)로 표시한다. 그리하여 제 2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구조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圖示된다.



어떤 언어가 이 체계를 가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1) T軸上에서 S를 기준으로 한 $S=E(PR)$, $S<E(P)$, $S>E(F)$ 의 관계, 즉 單軸의 구조만으로 충족될 경우, (2) 어떤 狀況이 기준시 C에서 인식되는 T'軸을 T와 並行시키고, 그 위에서 $C=E(PR')$, $C<E(P')$, $C>E(F')$ 를 도출한다. 다시 그것을 T軸의 S에 끌어 올려 $C>S$ 의 관계로 통합시키는 2軸構造를 요구할 경우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다.

I.3 이로써, 우리는 狀況과 觀察, 그리고 발화가 時間軸上에 어떻게 관계의 脈絡을 이루어 문법화되는지, 또한 狀況觀察의 視點과 視角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살폈거니와, 그러나 국어의 구체적인 실제의 문제는 留保되어 왔다.

우리의 목적은 국어의 時相法, 그 가운데서 특히 中世의 文獻語에 投影된 形態素를 가리어 範疇로 묶고 각 범주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얼핏보기에는 앞의 規範的 模型과 무관한 일인듯 하나, 사실은 체계와 형태소의 관계는 마치 전체와 부분처럼 循環的 相關性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치 이들의 문제는 어느 한쪽을 빼고는 存立하지 않는다.

국어의 時相法 體系가 앞에 든 모형 중 어느 것에 해당될지는 단순히 판단할 일이 결코 아니지만, 그간의 성과에 힘입어 우리의 논의를 위해 假說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두번째로 제안된 2軸構造의 체계로 想定하는 데 주저치 않는다. 그래서 本稿는 비록 형태소기술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작업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역시 체계기술에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각 형태소의 素性和 구조해석까지도 包括하는 統辭·意味의 문제가 확대검토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假說을 검토하는 일에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I.4 狀況을 시간적으로 포착하여 관계지우는 문법범주에 時制와 함께 相(aspect)이 있다 함은 다 아는 일거니와 相은 흔히 S要素는 고려에 넣

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⁶⁾ 그리하여 시제가 狀況의 外側時에 관계하는 데 반하여 相은 狀況의 內側時와 관계하는 것으로서 결국 그것은 狀況이 進行하는 방향에 대해 話者が 視點을 어디에 두느냐는 設置方法의 문제가 되고,⁷⁾ 그에 따라 相은 구분된다. 즉 時間線은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으로 움직이며(↔), 그것의 선택은 화자가 임의로 하게 되고, 그 시간선에는 狀況이 펼쳐지게 마련인데, 화자의 視線이 시간선을 過去→未來로 향하든가(ipf: →), 혹은 視點은 고정해 있고 시간선이 未來→過去쪽으로 흐르든가(pf: ←)의 어느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좀 달리 시간선의 움직임보다는 視線이 향하는 방향을 문제로 하고 화자의 觀察點도 시간선 밖에 想定하여 화자의 視點을 취하는 법을 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⁸⁾ 視點을 시간선 밖에 두면 視點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視野도 정해진다. 그리하여 狀況 對 視野의 관계에는 狀況全體가 視野에 들어 올 경우와 일부 밖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것과 視點을 관계지우면 다음과 같이 된다.

- ① 視點을 狀況의 開始點 위에 두고 狀況全體를 視野에 넣는 경우,
 - ② 視點을 狀況의 終結點 위에 두고 狀況全體를 視野에 넣는 경우,
 - ③ 視點을 時間線 內側에 두고 狀況의 일부만을 視野에 넣는 경우,
- 이것은 곧,

前望(prospektiver Aspekt) 未完了 ipf.

回顧(retrospektiver Aspekt) 完了 pf.

內觀(introspektiver Aspekt) 未完了 ipf.

와 같이 바뀌 놓을 수 있어서 視點·視野를 설정하는 세가지 방법이 相과

6) Comrie(1976), p. 5. 相은 狀況의 시간을 어떤 다른 時點에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狀況의 內在的 時間的 成分(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에 관련한다고 한다.

7) Koschmieder, E.(1927) 1974: 'Stuien zum Slavischen Verbalaspekt,' der Englische Aspekt, ed. Schopf, A.

8) Deutschbein(1939) p. 141.

對立함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時制와 相의 機制는 다르다. 그러나 어떤 언어가 이 示差性을 문법으로 갖느냐는 역시 恣意的인 선택이지 보편성의 원칙문제는 아니다. 狀況의 객관적 시간구조에 대한 인식방법이 제각기 다를뿐, 다소간에 現象을 식별하여 포착하는 性向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認知되는 사실이다. 時制의 경우도 그랬듯이 국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標識法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검토해 볼 일임에 틀림없으나, 그 논의는 미루기로 하고 크게 본 外廓의인 구조특성만으로도 국어를 相의 文法, 혹은 순수한 時制의 문법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所謂 시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도 相에 상당하는 국면이 있다는 것이 예사로우며 일부 語彙나 統辭意味가 相에 관계된다고 해서 쉽게 相을 범주로 내세울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비록 相을 時制와 대등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相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겠지만, 相을 並立시키지 않는 이유는 다만 그것을 指標하는 形態素가 時制의 것과 같은 資質의 형태범주로 範列關係에 있다고 할 수 없어서다. 相의 문법적 지위부여는 의미와 더불어 형태의 범주적 특질이 조건이 된 것은 당연하다.

前述한 時制構造 중에도 時制뿐 아니라 相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제에 중점이 있으므로 해서 發話點(S)이 체계의 중심이 된다. 다시말해서, 마땅히 그것은 화자의 발화시점에 관계하는 時間的 deixis 이지만 발화점이 아니라 화자(=관찰자)의 視點을 체계의 중심에 두고 狀況의 경과에 관계하는 deixis를 생각하면 狀況에 중점을 두는 기술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假定에서 우리는 굳이 時相 또는 時相法이라는 用語法을 쓰게 된다.

II

II.0 전통적으로 時相法의 논의는 形態範疇의 확인에 근거하여 주로

屈折의 範列(paradigm)에 나타나는 特定の 先語末語尾들을 析分記述하는데 支撐되어 왔다. 따라서, 선어말어미 가운데서 그들의 素性이 時相法の 범주로 묶이는 형태소의 析出과 그들간의 相關性, 그리고 그들의 生起와 交替에 따르는 對立體系의 기술이 주된 과제였다. 그리하여 어떤 선어말어미의 介入與否가 文의 時間的 脈絡을 따지기에 앞서 전적으로 時的인 狀況條件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인식하여 지나치게 形態範疇 위주의 硬直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반성도 있게 되었다. 그것은 물론 記號의 本질에 대한 문제로서 형태가 구속하는 엄격성이 과소평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이 의미범주와의 對立關係로 문제될 경우, 형태 對 의미의 관계가 단순히 어느쪽의 일방적 支配에 따르는 성질이 아니며, 또한 이들의 대응이 반드시 1 對 1의 關係를 强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어떤 문법이 시상법을 의미범주로 가졌을 경우, 그것을 指標하는 형식으로 꼭 하나의 고정된 형태범주만을 요구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비록 형태범주상 다른 구조의 형식일지라도 그것이 시상체계를 이루는 것이라면, 모두 시상법의 형태범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 屈折의 형태범주만을 문제로 한 협의의 해석을 止揚하여 글 절은 물론, 語彙·統辭의인 統合形成이나 時間表象의 語彙項目에 대한 문제까지도 광의의 時相法 형식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인식에서 우리는 국어 시상법의 형태범주를 再考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범주의 구성과 발달의 측면에서 中世語 資料를 다시 吟味할 필요를 갖는다.

Ⅱ.1 시상법과 직접·간접으로 관련하는 형태범주는 대체로 세가지로 類別된다. (1) 先語末語尾의 分布特徵을 가진 屈折形態素, (2) 副動詞構成, (3) 時間辭.

이중 (1)에 대한 범주규정이나, 그것이 遂行되는 文法性的 質과 量이 역시 시상법의 主軸을 이루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 형태소의 存在(目錄)나 分布, 그리고 그 素性이 완벽하게 기술된 단계에 이르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업은 주로 이 미진한 점을 補完해서 개별 형태소의 확인과 그들의 체계적 기제를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2)와 (3)에 대해서도 語彙·統辭의 측면에서 그들이 시상법에 關與하는 객관적 조건이 무엇이며 通時的 推移關係가 어떠한 논리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지를 알아 보게 될 것이다.

II. 2 先語末語尾 {-ㄴ-}

어떤 의미가 문법적으로 關與의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한 기준을 ‘다른 意義가 있는 두 形態素는 그 分布에 있어서도 어딘가 다르다’⁹⁾로 環元可能하다는 것으로 하여 {-ㄴ-}의 일차적 資質을 ①形態素目錄과 ②分布의 문제에 둔다. 다시말해서 對立을 나타내는 수단은 주로 形態와 그것의 配置分布이며, 그것들에서 外的으로 파악되는 차이가 구조적으로 문법적 의미를 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ㄴ-}는 물론, 餘他的 形態소에 대해서도 일차적인 자질을 이끌어 내는 분석을 하게 된다.

「-ㄴ-다」:

〈1〉 그뿐 多寶佛이 더 菩薩의 니르샤터 善男子아 오라 文殊師利法王子
| 네 모뎀 보고져 하느다〈月釋. 十八, 76〉

이런 드로 니르샤터(世尊→阿難) 身中에 맞고아 읊겨 世와 界에 서르
드느다 하시니라(故로 曰 身中에 質遷하야 世界相涉이라 하시니라)〈楞嚴.
四, 94〉

臣下돌히 보고 훈 이브로 기료타 薄拘羅尊者 | 清白하샤 훈 돈도 아
니 바드시다 하더라〈釋詳. 廿四, 40〉

〈1〉에서 보이하고자 한 것은 {-ㄴ-}가 敘述法에 나타나는 가장 단순한 統合形이다. 이것은 통합관계에서 不定形(基本形)인 「- ϕ -다」와 직접으로 대립한다. 이 {-ㄴ-}는 몇가지 점에서 특수하다.

(1) {-ㄴ-}는 母音調和의 어떠한 制約도 받지 않으며, 따라서, 異形態

9) Z. Harris(1963).

{-느-}를 갖지 않는다.¹⁰⁾

(2) {-느-}는 活動性(=-狀態性)의 意味資質을 가진 動詞語幹(動作動詞)만을 지배한다. 이것은 이른바 動作動詞만을 前接語幹으로 취하고, 逆으로 狀態動詞는 前接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이와같은 성질은 {-느-}의 素性記述에 關係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 狀況을 변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a) 不變化(同一狀態의 持續), (b) 瞬間的 變化(한 狀態에서 다른 상태로의 순간적 이동), (c) 漸進的(段階的) 變化(처음 상태와 마지막 狀態 사이에 몇 개의 단계가 있는 것)등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하여 時間構成을 가지는 狀況을 狀態性, 活動性, 遂行性으로 다시 나누고, 이들과 이 變化性을 관계지우면, 狀態性은 a, 活動性은 a와 c, 그리고 遂行性은 b에 의해 설명된다. 이렇게 볼 경우, {-느-}는 活動性和 遂行性을 지배하고 a, b, c의 變化性 모두를 수렴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a는 狀態性和 活動性¹¹⁾에 겹치는 關係를 보이며, 그것은 a의 下位分類을 불가피하게 하여 國어의 狀態動詞(形容詞)와 같은 語類는 a가 운데서 活動性的의 것을 除外시킨 狀態性的의 a만을 의미특질로 가진 것이 된다. 결국 不變化性은 狀態動詞의 특질이 되며, 일부 動作動詞에도 이 특질을 가진 것이 있지만, 그것은 보다 구체적인 下位概念에 있어 前者와는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不變化性的의 下位概念으로 狀況의 {±均質}이라는 가, 持續의 質의 차이와 같은 성질이 문제된다.

한편, 否定的인 側面에서 {-느-}는 狀態性的의 不變化를 資質로 가지는 語

10) 接尾辭의 母音調和는 語幹의 그것과 달리 특수한 제약을 가졌다 하거니와(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 p. 136), {-느-}는 {-오/우-}, {-아/어-}, {-빅/브-} 등과는 달리 모음조화에 무관하다. 그러므로 이들의 母音는 基底形에 있어서도 明示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護彌訶佛 소리꾼 들노라』(釋詳, 六, 15)의 '들노라'에서 {-노-}를 「-ㄴ-오-」로 분석하고 {-ㄴ-}이 {-느-}의 縮約이라는 근거에서 {-ㄴ-}을 {-느-}의 異形態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表層形은 {-노-}만이 있을 뿐이고, 결국 {-ㄴ-}은 {-느-오/우-}의 통합에 한해 나타난다는 것이 된다. 만약 {-ㄴ-}이 {-느-}와 무관하다면 마땅히 {-노/누-}가 있어야 할 것이다.

11) Static: understand, know, love, mean, fear, exist, discover, learn.

幹類(狀態動詞)와의 統合에 있어 排他的이라는 것도 眞이다.¹²⁾

이와같은 {-느-}의 語幹制約은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갖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 制約性이 {-느-}의 素性을 객관화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크다.

II.3 (3) {-느-}가 다른 語尾들과 취하는 統合關係는 다음과 같다.

① 先語末語尾 {-을-}, {-시-}만을 前接하는 統合을 이룬다.

<2> i) 世尊이 큰 法을 니르시며…… 큰 法鼓를 티시며 큰 法義를 퍼려
하시느다<釋詳. 十三, 27>

ii) 오늬 내려 至德을 우습느니(于今之日 至德感涕)<龍歌. 56>

iii) 주는 내 하습시논¹³⁾ 뜨디시니라<訓諺>

그런데 이들의 배열관계에서 단순히 推考한다면, {-느-}에 前接될 수 있는 어미는 이밖에 {-더-}, {-거-}가 더 있을 蓋然性을 다음 用例는 暗示한다.

<3> i) 善慧 든좁고 깃거 하더시다<月釋. 一, 18>

ii) 이 一切衆生喜菩薩은…… 이제 불홀 스르샤 모미 곤디 물거시다<月釋. 十八, 42>

이 {-더-}, {-거-}에 대하여는 따로 살필 것이나, 우선 이들이 ‘습’, ‘시’ 사이에 介在하는 「-을-_거-시-」의 배열로 미루어 ‘시’에 後接하는 {-느-}는 당연히 필요하다면, 그 앞에 ‘더, 거’를 前接하여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용인치 않는 分布의 제약을 가진 것이라면, 그것

12) 그런데 매우 한정된 일기기는 하나 몇몇 狀態動詞가 {-느-}와 통합한 用例가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皮相的인 관찰형일 뿐 역시 {-느-}가 지배하는 意味資質은 그들 속에 內在된 [活動性]의 局面일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것은 각 語項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문제이고, 나아가 {-느-}의 特質記述을 위해서는 해명돼야 할 문제이므로 別項의 本文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13) {-느-}의 문제에 직접 관계될 것 같지는 않으나, 이 ‘-습시-’는 ‘-스브시-’로 나타나는 用例도 있는데 이들이 變異形인지, 아니면 對立形인지는 속단할 수 없다. ‘請하야 묻조오시는 마리(請問之辭)<法華, 七, 16>’.

은 이들 ‘ㄴ, 더, 거’가 서로 排他하는 選擇的(paradigmatic)관계의 어미라는 것을 傍證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역시 {-ㄴ-}의 통합형 가운데 「- $\left\{ \begin{array}{l} 더 \\ 거 \end{array} \right\}$ -ㄴ-」는 實在치 않으며, 따라서 이런 推理는 이들 어미에 相關性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基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이유가 되기는 충분하다.

한편, 「-옛/옛-ㄴ-」에 대해서도 미리 주의를 喚起해 둘 필요가 있겠다.

〈4〉長者 | 菩提樹 미퇴 드러다가 삼동내 버려 더뎛느니라〈月釋. 八, 102〉

‘-옛/옛-’에 대한 形態素分析和 形態論的인 해석의 문제가 先決되고서야 비로소 {-ㄴ-}의 前接要素의 資質이 드러날 것이지만, 예측되는 바, i) 「V₁+아/어~V₂+ㄴ+…」의 구성관계에서 V₂에 해당하는 어간 「잇-」과의 통합, ii) ‘-옛/옛-’을 化石化된 선어말어미로 하는 적어도 두가지 分析法이 있을 수 있다. i)일 경우는 II.2의 (2)에서, ii)일 경우는 II.3 (3)의 ①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3)-①의 문제라면, {-습-}, {-시-}와함께 {-옛/옛-}을 追加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옛/옛-’의 共時的 記述을 거친 뒤라야 그 方向이 정해질 것이므로 留保시킬 수밖에 없다.

이상의 分布를 추려 圖示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活動·遂行性」[-均質]의 動詞語幹+습+시(+옛/옛?)+{-ㄴ-}……

② {-ㄴ-}와 統合하는 後接의 先語末語尾의 目錄은 주로 ‘-오/우·니·이-’ 등이다.

〈5〉i) 나는 如來 스승 불 쟈글 츠마 보습디 몬호야 가노라¹⁴⁾ 흥시고〈釋詳. 廿三, 36〉.

14) 叙述法の 定動詞語尾 {-다}는 ‘-오/우-, -니-, -이-(繫辭)’와 직접 통합하는 조건에서는 異形態 {-라}가 됨은 다 아는 일이다. 「-ㄴ-오/우-」는 중간에 어떤 어미도 介在시키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縮約된 語形 「-노-」로 나타나다(이와 相補的인 「-누-」는 없음).

ii) 이 고조로 香油 땡 마느니라〈月釋. 十八, 53〉

iii) 밧긔 흘 쇼겨이 琴을 잘 노느이다〈釋詳. 廿四, 52〉

iv) 沙門은 느미 지손 너르물 먹느니이다¹⁵⁾〈釋詳. 廿四, 22〉

i), ii), iii)은 각각 {-느-}와 ‘-오/우-’, ‘-니-’, ‘-이-’가 직접으로 단독통합한 용례이고, iv)는 이들이 복합통합한 것을 보인 것이다.

이로써 {-느-}의 통합적 분포에 있어 前接關係에 이어 後接의 目錄과 그 배열이 확인되었으니, 즉 그것은

‘…{느}+오/우+니+이-’의 것이다. 이밖에 不完全하지만 {-느-}와 後接統合하는 ‘-스-’가 있다.

v) 爲頭 도즈기 무로더 너희돌히 므스글 보느는다¹⁶⁾〈月釋. 十, 28〉

‘-스-’의 쓰임은 不具의이며, 그것은 ‘-스-’에 말미암은 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스-’의 素性和 형태론적인 자질이 밝혀진 뒤라야 그 分布의 조건이 드러날 것이며, 그것이 {-느-}의 素性記述에 寄與할지도 모를 일이나 관심밖의 일로 소외된 것의 하나다. ‘-스-’와 統合關係를 이루는 어미의 閉鎖性도 그러하지만, 이를 포함하는 어떠한 범주가 있어 選擇關係를 이루는 어미를 거느리는지 확실치 않다.¹⁷⁾ 한편 이 「-느스-」와 쌍을 이루

15) 이는 ‘-느니이다’로 겹쳐 통합된 分布를 나타낸 예다. 그런데 ‘-노니이다’로 통합된 예는 없다(있다 하더라도 後代의 것). 물론 이것은 {-느-}에 관계하는 일은 아니며 {-오/우-}와 {-니-} 또는 {-이-}와의 문제일 것이나. 이들의 素性記述에 제약조건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눈길을 끈다.

16) {-느-}를 前接條件으로 하는 {-스-}의 敘述法定動詞形 「-느스다」의 用例는 없다. 그러면서 ‘-느스-’形은 叙法이 다른 어미와 통합한 用例만이 보일 뿐이며 그나마 매우 드물다. 그것은 {-스-}의 分布 자체가 ‘-오/우, 니, 이-’ 등과는 달라서 폐쇄적이라는 데 연유된 것으로 짐작된다. {-스-}의 분포는 ② 後接語尾로 「-는다, -이다, -라」, ③ 前接語尾로 「-느-, -아/어-, -다/라-, -샤-」만을 가진다.

스름 方便을브터 三摩地에 드스는다(從何方便하야 入三摩地하스는다)〈楞嚴. 五, 31〉 너희돌히 아라사라〈月釋. 十, 26〉 부베 實로 大乘으로 教化하시다스이다〈月釋. 十三, 36〉 너르시리타스이다〈月釋. 十三, 36〉 하시리샤스이다〈圓覺. 上, 一之一, 10〉.

17) 이것을 신어말어미의 屈折範疇 중 ‘강조-영탄법’으로 묶어 상당히 복잡한 質量的 어미들을 一括해 버린 견해가 있으나, 그대로 따를 수 없다. 許雄(1975)

는 것으로 보이는 「-노소-」의 관계도 吟味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vi) 王이 비호샤 손지 그치디 아니하야 외오시느니 우리도 이 偈를 좃츠바 외오노소라<月釋. 八, 100>

「-노소-」의 ‘-노-’를 구태어 <5>-i)과 다른 別個의 어미로 분석하는 근거는 그것이 나타난 用例가 모두 고정적으로 「-노소-」形이고, 그것의 문법성이 不透明한데 있지만 역시 그 基底形은 「-노-오/우-」일 가능성이 크다. 아마 <5>-i)의 ‘-노-’와 다른 分布特性을 가지게 된 것은 ‘-소¹⁸⁾’에 牽引된 나머지 ‘-노-’의 素性이 퇴색하여 일종의 中和現象을 치른 탓으로 보인다.

이렇게 확대하더라도 叙述法에서 {-노-}에 後接하는 어미목록은 「-오/우·니·이·(스·소)-」가 되며, 따라서 {-노-}의 전체 統合分布는 이렇다.

「活動·遂行性」[-均質]動詞語幹·을·시·(옛/옛)+{-노-}+오/우·니·이

p. 923. 비록 그들의 指標성이 모호하고 不具의인 分布를 가졌다 해도 특히 그들이 가졌을 通時的 의미는 매우 含意의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정밀한 再分析이 있어야 할 문제다.

- 18) ‘-노소-’의 ‘-노-’가 <5>-i)의 것과 구별되는 것임을 강력히 示唆하는 단독형의 用例는 오직 “뜬 龍이 긴 놀이 지엿노다”(浮龍倚長津)〈杜初. 廿二, 28〉”가 있을 뿐이며 이것은 重刊本에서 ‘지엿노다’로 바뀌고 있다. 만약 <5>-i)와 같은 것이라면 이것은 ‘지엿노라’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重刊本에서도 바뀔 이유가 없다. 그러나, ‘一物이 스스로 皇天入恩惠를 니벳노라(一物自荷皇天慈)〈杜初. 十五, 2〉’와의 對比에서 ‘지엿노다’와 ‘니벳노라’가 어떠한 문법적 變별성을 가지는지 의문이다.

한편 「-노-오/우-」와는 무관한 ‘-노-’라는 것을 ‘-도-’와의 관계에서 이끌어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 「曲江入 프른 帳幕엔 銀榜이 버벳노다(曲江翠幕排銀榜)〈杜初. 十五, 1〉’.

‘-노다’의 用例가 全無하다시피한 것과는 달리 ‘-도다’는 흔히 나타난다. 그런데 이 ‘-노-’와 ‘-도-’는 「-노소-」, 「-도(로)소-」(이밖에 「-과소-, -다소-」가 있지만), 「-노-」, 「-도-」와 같은 對를 이룰 경우는 일반적인 用法을 갖는다. 무슨 이유에서 ‘-노다’가 잘 쓰이지 않으며 그에 반해 ‘-노라’가 常用되는지, 그리고 ‘-노-’와 ‘-도-’의 素性資質이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끌어 내기가 어렵다. 의외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이른바 ‘강조-영탄법’의 어미류에 대한 엄밀한 詳察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는 선어말어미의 {-노-}는 하나이어야 하고, 그것은 「-노-오/우-」에서 緣由한다는 입장에 선다.

·(스·소)-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統合構造안에서 同一範疇에 속하며 對立關係를 이루는 形態素가 重複됨을 許容치 않는 原則, 다시말해서 한 범주내의 同族形態素는 重複되지 않는다는 原則 때문에 이들 각항의 어미는 {-느-}와 는 다른 범주의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II.4 (4) {-느-}와 選擇的 關係를 이루는 先語末語尾

{-느-}는 필시 어떤 문법범주에서 어떤 對立素性을 나타내는 단위라는 假定(가령 時相法등)에 따라 {-느-}의 범주기술은 우선 그와 선택적 系列關係를 이루는 語尾들의 檢出과 그들 간의 辨別資質을 끌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항에서 살피고자 하는 바는 {-느-}를 비롯하여 그들과 같은 系列語尾들을 類合하는 일과 아울러 그들이 이를 범주의 內部構成을 밝히는 데 요긴한 기초적 情報를 얻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미 위에서 지적했듯이 {-느-}와 통합할 수 없는 先語末語尾 가운데에는 ‘-더-, -거-’가 있었다.

<6>-i) 如來 이 나라뿐 아니라 너는 나라해도 다 겨샤 若空無常無我和六波羅密을 니르더시이다 <月釋. 七, 53>[*니르더시느이다]¹⁹⁾

ii)-a) 더 좋아 널췌 하마 다둔저다 <釋詳. 廿四, 15>[*다둔저느다]²⁰⁾

b) 갓장소리 룰 내야 널오더 설블췌 世界 뵤어다 하며 <釋詳. 廿三,

19) ‘니르시느다 <釋詳. 十三, 18>’, ‘꼭느이다 <月釋. 八, 94>’의 분포모형에 의해 추리되는 것으로 ‘니르더시느이다’의 統合語句가 있을 법도 하나 그런 實現形은 없다. 이것을 예측 가능한 단순모형으로 나타낸다면, 「니르더라(다)」에 대하여 「니르더느다」가 된다는 것이 되고, 따라서 {-더-}와 {-느-}는 하나의 統合語句안에 共存할 수 없다는 論理가 되며, 그것은 {-느-}와 {-더-}가 同族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 {-거-}와 통합가능한 어간자질은 {-느-}와 다르다. 그것은 대체로 ‘狀態性’의 동사를 지배하며, 이 性向은 {-거-}의 素性記述에 중요한 조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느-}를 배타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뿐만 아니라 범주중복의 모순성 때문에 제약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가 {-리-}와 통합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며 별도의 고찰을 요한다.

18) [*뵈어는다]

아직은 {-느}, {-더-}, {-거-}가 범주적으로 관련되는지, 또는 對立의 資質이 무엇인지 따질 단계에 있지 못하지만, 이들이 표출되는 分布의 連環만 보아서도 전혀 異質的인 관계에 있는 어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확인된 既定의 사실처럼 이들에게 범주적 同族性을 부여한다거나 이들의 交替가 時相法の의 구조에 근거한다고 하는 따위의 단정은 성급한 誤判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 이유의 하나로 이들은 각각 그들과 통합하는 어간의 범주부더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느-}와 통합하는 어간의 범주적 의미자질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할 여지가 없지만, {-더-}와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6>의 例示는 의도적으로 動作動詞를 취한 것만을 골랐을 뿐이지, 어간과 {-더-} 또는 {-거-}의 支配關係가 {-느-}의 그것과 같은 바탕에 있다는 것을 보이려 한 것은 아니다.

Ⅱ.5 <7>-i) 또 色界諸天도 느려 仙人이 드외더라<月釋. 二, 24> 虛空에 마드기 八部도 조스바 가더라<月釋. 二, 28>

ii) 그르메 받기 스뵈 뵈요미 瑠璃_르더라<月釋. 二, 22> 病환사르미 잇거든 夫人이 머리를 문지시면 病이 다 뵈터라<月釋. 二, 30> 길헤 사롬 濟渡_하샤미 그지 업더시다<釋詳. 六, 38-9>

iii) 뭇 後에 成佛_하신 일후미 燃燈_이러시다<釋詳. 十三, 35> 내나히 열힌 저귀 부테 오샤 우리 大闍에 드르시니 大闍 안히 고른 金_스비치러이다<釋詳. 廿四, 19>

iv) 恒沙菩薩이 道場에 와 모드시니 文殊師利上首 | 드외엇더시다<楞嚴. 一, 30> 大王이 어디르샤... 여신 小國에 위두_하엇더시다<釋詳. 十一, 17>

<7>의 例項은 {-더-}와 통합하는 어간의 범주가 {-느-}의 그것과는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는 {-느-}가 그러했듯이 動作動詞(<7>-i)의 것)

의 活動·遂行性을 지배하면서 그들의 不變化, 瞬間的變化, 漸進的變化 모두를 포용할 뿐만 아니라 狀態動詞(<7>-ii)의 것)의 狀態性(不變化), 그리고 「體言+繫辭」構成(<7>-iii)의 것)의 敘述法까지도 前接語幹으로 하는 無制限性을 가진다. 이러한 {-더-}의 開放性은 {-더-}가 어간에 나타내는 狀況의 時的 資質에 關係하지 않는 中立性에 起因된 것이라 할런지, 또는 적어도 {-느-}와는 같은 層位에서 關係하는 對立項의 형태소가 아니라는 근거에 말미암은 것인지 速斷키 어려우나, 傳統的인 時相法의 體系로는 그 자리와 機能을 완벽하게 규정지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語幹의 통합조건에서 {-더-}가 <7>-i, ii, iii)을 전반적으로 용인하는 意味域과 {-느-}가 <7>-i)만을 용인하는 意味域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이럴 경우 {-느-}와 {-더-}가 排他的인 분포관계를 이루는 이유가 {-느-}와 {-더-}의 단순한 水平的 문제에서 연유될 수 없다는 강한 의문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兩者의 素性은 물론, 時相構造를 밝히는데 깊이 關係할 것이기 때문에 特記할 사항이며, 그 具體的인 검토는 앞으로 別稿에 기대를 건다.

한편, <7>-iv)는 <4>의 對比例로써 ‘-엿/엿-’과의 통합이 {-느-}의 경우와 다르지 않음을 보인다.

II.6 <8>-i) 그 뼈 모던 노미 比丘를 주구리라 ㅎ야 比丘드려 널오다 더 중아 널웨 ㅎ마 다둔거다<釋詳. 廿四, 15> 王사 中엿 尊ㅎ신 王이 업스시니 나라히 威神을 일허다 ㅎ고<月釋. 十, 9>

ii) 安樂國이논 아비를 보라 가니 어미도 몸 보아 시르미 더욱 길거다<月釋. 八, 101> 내 北方毗沙門天王사아돌 威大將軍이로니 天帝人命을 받즈와 와 擁護컨디 오라거다 ㅎ니라<楞嚴. 七, 62>

iii) 아비 每常 아드를 念호터 아돌와 여회연디 쉬나몬 ㅎ어다 호터<月釋, 十三, 9>. 너회돌히 힘베 스라 바미 ㅎ마 ㅎ어다<釋詳. 廿三,

13)

iv) 갈기에 구스리 베엿거든²¹⁾ 솔로 빗기면 놀곤 구스른 떠러디고<月釋. 一, 27> 靑蓮花 | 一千이 넛거늘 四禪天이 아랫 劫 이를 보고 自中에 넛오디<月釋. 一, 40> 남지니 넛오쳐 紗해 업더엿거늘 그 겨지비 밥 가져다가 머기고<月釋. 一, 44> 世尊入神奇호신 이리샤 經에 다 넛엿거니와 내 나히 열힌 저기 부터 오샤<釋詳. 廿四, 19>

<8>은 {-거/어-}²²⁾의 前接語幹을 <7>에 준하여 들은 것으로 이 둘의 경우 그들이 지배하는 어간범주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거/어-}와 {-느-}의 어간지배능력의 차이는 {-더-}와 {-느-}의 그것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시 {-더-}와 같은 면에서 詳察이 요한다 하겠다.

Ⅱ.7 이상 敘述의 定動詞形에 關係하는 前어말어미들 가운데 {-느-}와 選擇的 關係를 이루는 {-더-}와 {-거/어-}를 살폈다. 이들은 그 排列의 자

21) 여기서 기대하는 용례는 ‘베엿거다’와 같은 ‘-엿/엿거-’를 內包하는 敘述의 定動詞形이다. 그러나, 그 實在를 확인할 수 없어 그 推理를 가능케하는 傍證例로 ‘-엿거든, -엿거늘, -엿거니와’를 들게 되었다. 아무튼 ‘-엿/엿거-’의 屈折이 불완전한 것만은 확실하며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엿/엿-’의 문제와 함께 크게 나타날 것이다.

迦葉이 架娑를 바다 드스바 고즈기 안자 잇거늘 王이 울며 禮數하고 나니 <釋詳. 廿四, 6-7> 그저기 치워 어르미 어릿거늘 王祥이 옷 바사 버리고 어 림 뵈고<備小. 九, 25>

22) 이 {-거/어-}의 형태기술은 완벽을 기했다 할 수 없다. 우선 {-가/아-}와의 관계가 불투명하다. 얼핏보기에는 音韻論의 조건에 따라 交替되는 變異形 일 듯 싶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가장 특이한 것은 敘述의 定動詞形에는 {-가/아-}가 쓰이지 않은 사실이다. 만약 音韻論의 제약을 받는 것이라면 <8>의 例中 ‘다든거다, 오라거다, 허어다’ 등은 ‘다든가다, 오라가다, 허아다’와 같이 쓰였을 것이 확실하다. 그런가 하면 일부의 굴절형, 특히 命令形의 경우, ‘갑가라<蒙法. 31>/알아라<蒙法. 31>/니거라<月釋. 八, 101>/드러라<月釋. 十, 21>’의 용법(‘오다’는 ‘오나다’<月釋. 十三, 32>에 대하여 ‘오나라’<月釋七. 7>形이 쓰임)이 특이하여 과연 이들의 文法性의 判別을 어떤 조건에 근거해야 할지 당혹케 한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뒤에 다시 논의될 것이다.

리가 {-ㄴ-}에 先行하는 점에서 다음에 들 어미들과 우선 구분된다. 그런데 이미 본 것이나, 다음의 것 모두가 하나의 定動詞形內에서 {-ㄴ-}와 排他的이라는 점은 공통되지만, 그 排列順位에 있어 어느 것 하나도 {-ㄴ-}와 同位置의 垂直的인 系列關係에 있지 않은 것도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ㄴ-}를 비롯하여 이들을 범주로 묶는데 하나의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어말어미들이 취하는 배열위치가 有義的이며 그것이 동일 범주에 속하는 같은 系列에서 對立하는 것일 때 역시 같은 위치에서 垂直的 關係를 이룰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경우, {-ㄴ-}를 비롯하여 이것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어미들은 이러한 분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되어 범주기술의 否定的인 면을 보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배열의 性向은 {-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어미들에만 있지 않으며, 다른 類의 어미(가령, {-시-}와 {-습-}) 모두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배열의 位置模型은 모든 선어말어미들을 內包하는 구성일 경우를 假定한 것이다. 그것은 각 어미를 상대적으로 對比해서 얻어지는 前後關係에 따라 이끌어내지는 것일 뿐이지 實在形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單純構成, 즉 하나의 선어말어미만을 內包하는 構成²³⁾에 있어 이들의 交替가 排他性을 가지는 관계에서 배열모형의 순위가 따로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構成形을 가장 단순한 基本模型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이 모형 내에서 排他的으로 交替되는 어미들은 垂直的인 선택관계에 있다 해도 모순은 아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앞에서 우려했던 범주기술의 否定性이 解消, 또는 減縮된다 하겠지만 그러나 선어말어미류의 위치적 특징이 指標하는 有義性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일단 그 해석의 유연성을 인정해 두면서 {-ㄴ-}는 그와 同位置에서 선택

23) 가령, '가다'를 예로 할 때 '가나다<楞嚴. 十, 37>/가더라<月釋. 二, 28>/가거다<老下. 59>/가리라<杜初. 十, 39>/...'와 같은 定動詞形.

적 관계를 이루는 어미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Ⅱ.8 다음은 {-ㄴ-}에 後接하면서 선택관계를 이루는 어미를 차례로 列擧하려니와 그들 중 {-ㄴ-}에 가장 近接된 자리를 취하는 것이 {-리-}다.

<9>-i) 天人을 다 請하리니 너희도 이 法食을 머그리라<月釋. 二, 16>
迦葉尊者 | 雞足山에 가리라 하야<釋詳. 廿四, 6>

ii) 네 後에 부테 ㄷ의야 五楞惡世에 天人濟渡호물 설비 아니호미 당다이 나 골하리라<月釋. 一, 17> 法身이 둘히 아니리라(法身이 不二矣리라)<楞嚴. 二, 14> 볼ㄴ면 보미 업스리며(明하면 則見이 亡하리며)<楞嚴. 三, 94>

iii) 네 어미... 無憂國土에 나 목수미 물 험 劫이리라<月釋. 卅一, 59> 勝妙境이 거름마다 다 크리라<月釋. 十七, 35>

{-리-}의 어간제약의 조건은 <7>, <8>의 것과 다르다. 우선 <7>, <8>에 있는 iv)의 用例, 즉 「-옛/옛-리-」의 統合形이 없는 점이²⁴⁾ 特異하다. 「-옛/옛-ㄴ-」(<4>의 것)로 비추어, 만약 {-ㄴ-}와 {-리-}가 同範疇의 대립하는 형태소라면 「-옛/옛-리-」의 蓋然性이 충족되는 데도 불구하고 실재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① 비록 {-ㄴ-}와 {-리-}는 선택관계를 이루지만, 그것은 同範疇의 대립관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② 만약 ①이 僞라면 ‘-옛/옛-’에게 책임이 돌아가 {-리-}의 素性記述과 함께 ‘-옛/옛-’의 資質을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情報源이 될 것이다. 그리고, i), ii), iii)은 <7>, <8>에 準하는 것으로 {-리-}의 어간지배능력이 動作·狀態, 그리고 繫辭構成에까지 미침을 보이는 것이나, 그

24) 이것은 ‘-옛/옛-’의 자질과 관련되는 문제로 눈길을 끌며, 만약 그것이 「-아/어-잇-」 構成의 단순한 縮約形이라면 ‘-이시-’와 {-리-}의 자유로운 통합을 보이는 다음 例로 미루어 「-옛/옛-리-」의 蓋然性은 論證된다. 往生快樂이 달음 이시리잇가<月釋. 九, 5>, 반드시 中間에 이시리로소히다<楞嚴. 一, 69>.

그런데도 이 통합이 非文法性을 갖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複合性的의 자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7>, <8> 또는 {-ㄴ-}의 경우와 상충한다.

중 ii), 즉 狀態動詞를 어간으로 취하는 用例는 거의 없다할 만큼 적다. 이런 사실도 보아넘길 凡常한 일이 아니다. 가령, {-리-}가 단순히 未來時制를 指標하는 것이라면, 狀態動詞와의 통합이 閉鎖的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필시 {-리-}의 素性和 語幹의 意味資質間的 제약일 것이 분명하며, 역시 {-리-}를 기술하는 데서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선어말어미열의 문제에서 {-리-}가 {-더-}와 통합하는 까닭도의 아스럼거니와 그것의 順列이 ‘-리러-’²⁵⁾인 것은 앞에서 지적된 <6>과 相反하는 것이어서 그 正位置가 다른 어미들에 비해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몇가지 배열상의 특성을 가지면서 {-리-}는 {-느-}와 엄격한 계열관계를 이룬다.

II.9 {-리-}와 함께 {-느-}와 선택관계에 있으면서 배타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어-}가 있다.

<10>-i) 導宣신 王이 업스니 나라히 威神을 일허다 ᄃᆞᆫ<月釋. 十, 9>
모다 닐오더 舍利弗이 이긔여다<月釋. 六, 31> 녀시 어느 趣에 간동 물
라이다<月釋. 廿一, 27>

ii) 나도 머릴 울워러 설버이다 救宣쇼셔 비수보니<月釋. 二, 52>
오날 尊者 보수보니 깃부미 그지 업서이다²⁶⁾<釋詳. 廿四, 34>

25) 功德이 이려 당다이 부베 ᄃᆞᆫ리러라<釋詳. 十九, 34> 내 하 더러버 사르미
문 나사 가리러라<釋詳. 廿四, 50>.

가령 ‘-더시-’와 ‘-시더-’가 並存했던 것에 미루어 ‘-더리-’와 ‘-리러-’도 있을 법하나 {-더-}와 {-리-}의 통합형은 ‘-리러-’가 있을 뿐이다. 선어말어미의 상대적 위치관계에서 誘導되는 順位로 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리-’가 예측되는 것이다. 句構造 안에서 선어말어미열이 단순한 관용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서 이러한 문제는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26) 때로는 <8>에서 舉論한 {-거/어-}와 {-아/어-}가 혼동될 우려가 있다. 그것은 이들이 담당하는 素性が 불투명한 데도 이유가 있으나, 이른바 ‘ㄱ’ 默音化에 따른 變異形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들이 엄연히 대립하는 별개의 어미라는 것은 다음의 예만으로도 확인된다.

내 이제 世尊을 마즈막 보수보니 축훈 마수미 업거이다<月釋. 十, 8> 世間에 慧日이 업스샤 울워수블리 업거시다<釋詳. 廿三, 19>.

iii) 佛祖도 尙被渠吞却이어니²⁷⁾〈金剛三, 二, 60〉

{-아/어-}가 지배하는 어간도 역시 {-리-}와 같다하겠으나, 다만 iii)의 것, 즉 「體言+繫辭」에 後接하는 ‘-어-’는 그것이 {-거-}의 變異形일 수도 있겠다는 점²⁸⁾에서 주저스럽다. 그렇기도 하지만 {-아/어-}와 {-거/어-}의 대립소성의 불확실성²⁹⁾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提論되어 밝혀진 뒤라야 이들의 辨別機能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이 두개의 형태범주라는 엄연한 사실과는 달리 각기 어떠한 素性을 가진 對立項인지는 아직도 명쾌한 답을 얻었다 할 수 없다. 그리하여 형태상의 類似와 함께 機能의 混沌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 {-아/어-}가 역시 {-거/어-}와 더불어 {-리-}와 통합하는 관계를 이룬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그 語尾列이나 兩者의 分別이 형태상으로 달리 나타나 눈길을 끈다.

〈11〉-i) 「-리-아/어-~-아/어-리-」

a. 하마 비 오려다 훤저귀 羅睺阿脩羅王이 두 소년로 비와 구름과 자바〈月釋. 十, 85〉 죽사릿 因緣은 둔디 몰호려다〈月釋. 一, 11〉 世間엿 누니 업스려다〈釋詳. 十一, 11〉

b. 鞭轡를 날호야 돌아와 노푼 이바디를 일위리아〈嬾廻鞭轡成高宴〉〈杜初. 十五, 45〉 眞知로 그스기 化호시다 닐어리로드〈月釋. 十三, 44〉 天龍이 조짜분며 花香이 누리니 그 낫 莊嚴을 다 솔바리잇가〈月印. 上, 127〉

27) 이미 註 26에서 지적했듯이 iii)의 {-어-}가 {-거-}인지 혹은 {-아/어-}인지 모호하다. 그것은 繫辭에 이어지는 ‘ㄱ’의 默音化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의 譯文이 ‘佛祖도 오히려 더의 머구무물 니버니’인 것으로 미루어 이것이 {-거-}의 變異形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그것이 {-거-}의 變異形이라면, ‘니버니’는 ‘님거니’가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28) 濟渡衆生이 幾千萬이어노〈月印. 上, 166〉엿때 츠마 眷屬이 다시 業을 더으거노〈月釋. 廿一, 106〉의 對照關係로 보면 ‘幾千萬이거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가 하면, 현맛 莊嚴과 현맛 供養이 祥瑞를 퍼아노〈月釋. 十七, 23〉와 의 관계로 보면 그대로 {-어-}라야 옳다. 보다 정밀한 검증이 있어야 하겠지만 辨別의 징표가 뚜렷하지 않다.

29) 許雄(1975) p. 923. {-더(리)-}의 문제를 추가할 수 있다.

a, b는 {-리-}와 {-아/어-}의 위치가 서로 倒置된 것으로 보이는 例다. 물론 이것은 {-리-}를 기준하여 그것에 先後行하는 {-아/어-}나, {-아/어-}를 기준하여 그것에 先後行하는 {-리-}가 각각 別個素性的 어미가 아니라는 전제가 조건이 된다. 이와같은 일은 결코 정상이 아니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허용되는지 그 조건을 객관화하기는 어렵다.³⁰⁾

한편 {-리-}와 {-거/어-}의 통합열은 {-리-거/어-}³¹⁾이고, 그것은 a의 경우처럼 ‘-려-’로 縮約되지도 않거니와 b처럼 順位가 바뀌는 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ii) 「-리-거/어-」

大慈悲駕鴛鳥와 功德 닷는 내 몸이 正覺나래 마조 보리어다<月釋. 八, 87> 이 施主 | 오직 衆生의게 一切 즐거본 것만 주어도 功德이 그저 업스리어늘 ㅎ물며 阿羅漢果를 得게 호미싸니잇가<月釋. 十七, 48-9>

{-리-}와 통합할 경우 {-아/어-}, {-거/어-}, 그리고 {-더/려-}가 자리를 移動하는 현상은 주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그와같은 일은 단순히 우연하게 일어나는 자리바꿈이거나, 임의로 아무 자리나 끼어들어 臨機應變의 列을 이루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동기가 {-리-}에 있든, 아니면 저마다에 있든 간에 필시 어떤 文法性的 推移가 表出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본항의 직접대상이 아니므로 다만 의문을 喚起하는 데 그치려니와 다시 {-느-}와 선택관계에 있는 어

30) 이와같은 변칙적인 현상은 {-거/어-}, {-아/어-}의 모호성보다도 무관치 않으며 이런 면에서도 이들의 모호성을 벗기는 일이 선결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구체적인 논의는 뒤로 미루게 되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것은 이들이 본래부터 이러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변화의 어떤 단계에 나타난 離脫現象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것과 同軌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더-}와 {-시-}, 그리고 {-리-}와 {-더(려)-}의 문제를 추가할 수 있다.

31) 前述한 順位를 상대적으로 대조할 때 예측되는 統合列은 「-거/어-리-」가 된다. 가령, {-시-}를 기준할 때 이들의 統合列의 模型은 「-거/어-시-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實在치 않으며, 그 實在形은 「-시-리-어-」다. 모든 山林에 거시나 무수미 魏闕에 돌이시리어니 能히 잠간이나 安樂호시려<法華. 五, 11>.

미문제로 돌아가기로 한다.

II. 10 {-리-}, {-아/어-}에 이어 다음은 {-애/에-}가 있다.

〈12〉-i) 獄主 | 目連이 드려 무로터 어마니물 아라보리로소니잇가 目連이 널오터 물라 보애라〈月釋. 廿三, 86〉 내 긴 劫에 가히 모미 드외아 사락디 썩을 머구른 하려니와 地獄소리 드로물 두레라〈月釋. 廿三, 91〉

ii) 먼 마새 窮혼 시르미 흰하애라(絕塞豁窮愁)〈杜初. 廿三, 16〉 곧 사웁마쉬 락을 도니 업세라(無錢卽繫籬傍)〈杜初. 十, 4〉

{-애/에-}와 통합하는 語幹은 앞의 {-아/어-}와 대체로 같으나 다른 어미들과의 통합관계는 매우 다르다. 우선 敘述定動詞語尾가 {-라}가 되는 점을 비롯하여 극히 제한된 선어말어미만이 이와 통합형을 이루어³²⁾ 이들의 素性記述을 기다리지 않고도 {-아/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형태소임을 알게 한다. 비록 이것이 動作·狀態의 敘述語幹과 그 定動詞語尾 {-다/타} 사이에 단독으로 介在하는 分布資質을 가지기는 하지만, 叙法上的 閉鎖性이나, 余他的 선어말어미들과 排他的으로 관계하는 性向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이 부담하는 기능의 領域이 제한적이며, 脆弱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 {-애/에-}가 {-아/어-}와 異形態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형태나 素性的 有緣性을 想定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배제하는 것이 아니듯이, 이와 對照的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것으로 {-거/어-}에 대한 {-계-}가 있어 흥미롭다.

〈13〉 또 黑暗애 디어 無間獄애 드려 種種苦를 受호미 또 아디 묻게라 언마오〈牧牛. 43〉 畚興애 아디 묻게라 물읷 몇 마릿 그를 지스니오(春與

32) {-애/에-}에 先行하는 것은 {-리-}가, 그리고 後行하는 것은 {-이-}가 있을 뿐이다. 이들의 使用頻度는 {-애/에-} 자체도 그리하지만 前者는 後者에 비해 훨씬 稀少하다.

① 내 어미 아모터 넷는 디 물래이다〈月釋. 廿一, 53〉 밭 니고미 오라더 오히려 꼰히리 업세이다〈六祖. 上, 27〉.

② 내 말웃 아니 드르시면 너의 즐거븐 마스미 업스레이다〈月釋. 二, 5〉.

不知凡幾首)〈杜初. 廿二, 16〉惠能은 和尚의 縁 좁노니 弟子의 제 ㅅ수, 미 상네 智慧를 내야 제 性을 여회디 아니호미 곧 이 福田이어서니 아디 못게 이다(卽是福田이어서니 未審케 이다)〈六祖. 上, 8〉 만히 갖게 이다 누 의 님하(多謝姐姐)〈朴初. 上, 48〉³³⁾

이들 {-애/에-}와 {-게-}가 定動詞語尾 {-라}를 취하는데 반하여 {-아/어-}, {-거/어-}가 {-다}를 취하고, 다른 어미들과의 통합하는 제약 조건도 相異하여 별개의 語尾目錄으로 보았지만, 역시 이들은 通時的으로 繼起하는 有緣關係에 있다는 推測을 버리기 어렵다. 그 하나로 {-아/어-}, {-거/어-}가 優勢하게 나타나던 時期에는 {-애/에-}, {-게-}가 거의 보이지 않다가 {-아/어-}, {-거/어-}의 변화에 따라 불완전한 제약아래서 {-애/에-}, {-게-}가 擡頭하지만, 이 모두는 조만간 退嬰의 混亂에 이끌리는 상황을 빚고마는 資料의 분석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일부의 凝縮形, 즉 ‘-거/어나, -거/어늘, -거/어든, -거/어니와...’ 등에 殘留할 뿐 埋沒되어 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잊어버린 이들을 기억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이들의 문법성을 直觀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獰연한 實在와 分布特性으로 보아 그것이 필요했던 문법의 時代가 있었을 것이고 그 문법을 追跡하는 문제는 文法史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 밖에도 {-느-}와 排他的 關係를 이루는 어미에 이른바 強調-咏嘆法³⁴⁾ 이라고 한 {-옛/옛-}, {-것-}, {-도/로-}, {-똥-}, {-노-}, {-똥-}, {-닷/닷-}, {-샷-}, {-소-}, {-스-}³⁵⁾ 등 여럿이 있으나, 이들의 分布의 制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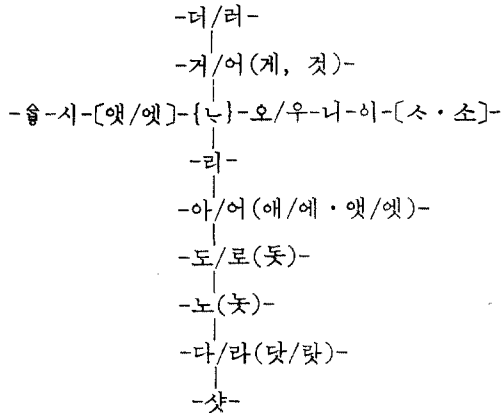
33) 「朴通事諺解」는 이것을 ‘多謝호노라 姐姐 ㅅ 아(朴通, 上, 44)’로 바꾸었는가 하면 ‘아디란 현 된동 몰래라(不知甚麼瘡)〈朴初. 上, 13〉→아디 못게라 므슴瘡인디(朴通, 上, 13)’로도 나타나 {-애/에-}~{-게-}~{-ㅅ-}의 혼란을 드러낸다.

34) 許維(1975), p. 923-956.

35) 선어말어미에 대한 논의에서 이들은 거의 靛靛 밖으로 밀려 死角地帶처럼 되어 있는 目錄들이다. 그렇게 된 데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 터이다. 대체로 그들의 文法性이 불투명하며 語末語尾 쪽으로 偏在되어 제한된 動詞句

이나, 統辭·意味의 閉鎖性과 같은 性向으로 보아 別途의 階層的(hierarchical) 秩序에 關여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假定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는 論外로 한다.

Ⅱ.11 이상 叙述의 動詞句를 구성하는 형태소들의 目錄과 分布特性을 살핀 셈이며, 특히 그것은 {-느-}을 基準點으로 하여 그것과 통합하는 관계의 것과 선택하는 관계의 것, 즉 縱橫의 두 軸이 이루는 座標를 鳥瞰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것을 한데 모아 圖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座標의 일차적 의미는 두 軸의 交叉點이 {-느-}라는 데 있다. 따라서 그 基準點을 바꿀 경우 이들의 分布位置도 변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며, 그러한 移動關係를 모두 합쳐야만 總括된 體系의 解釋이 가능해지리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에만 나타나는 特異性이 있고 統辭·意味上의 有義性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우선 이들을 皮상적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몇 묶음으로 분류해 본다. ① 「아/어~애/에~옛/엇」 ② 「겨~게~것」, ③ 「도/로~뚝」, ④ 「노~뚝」, ⑤ 「다/라~닷/랏」, ⑥ 「샷~소~스」.

막연한 가정일 뿐이지만 이들은 역시 기왕에 확인된 문법의 階層的 질서와는 다른 階層的 질서에서 그 存在理由가 검증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작업이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특정형태소의 체계적 기술과 그 素性的 客觀化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도는 {-ㄴ-}의 문제에 焦點을 맞춘 것이었다. 이것은 {-ㄴ-}의 해명과 함께 그와 相關關係에 있는 것들의 범주설정이나 체계기술에 유익한 기초를 이룰 것이다. 다시말해서 가령, {-ㄴ-}가 時相範疇의 한 項目이고 그것이 어떤 時制素性을 가졌다 할 경우 그를 기준으로 하여 그와 相關性을 이루는 모든 項目은 推論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ㄴ-}의 기술이 {-ㄴ-}를 포함하는 전체에 직결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III

III.0 {-ㄴ-}를 內包하여 통합하는 動詞句의 語幹은 엄격히 制約되었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ㄴ-}는 動作動詞만을 어간으로 취하는 특징이 있다. 동사의 語義가 되어 있는 狀況(situation)은 狀態性的 것과 活動性的 것, 그리고 遂行性的 것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중 狀態性만을 제외한 活動·遂行性的 것을 動作動詞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동작동사는 그 語義로서 活動·遂行性을 특질로 가지는 語類를 가리킨다.

그런데, 동작은 그것에다가 [±變化性]의 資質을 부여할 때, [+變化性]의 運動的動作과 [-變化性]의 靜止的動作이 下位分類되고, 이 가운데 [-變化性]은 狀態動詞에 있어서도 발견된다. 그래서 靜止的動作動詞와 狀態動詞는 적어도 [-變化性]에서 同質關係를 이루나, 이 [-變化性] 즉 不變性的 內部를 자세히 살펴계 되면 그들의 辨別資質이 될만한 要因을 찾을 수 있다. 즉, [-變化性]은 어떤 狀況의 持續을 含意하며 持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質的인 斷面으로 보아 均質의 持續과 非均質의 持續([±均質])으로 나뉘고 狀態動詞는 [+均質]의 것이며, 靜止的動作動詞는 [-均質]을 資質로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動 詞		資 質		狀 態 性	變 化 性		
		活動性	遂行性		+變化	- 變 化	
						+均質	-均質
動作動詞	運動的動作動詞	+	+	-	+	-	-
	靜止的動作動詞	+	+	-	-	-	+
狀 態 動 詞		-	-	+	-	+	-

Ⅲ.1 {-ㄴ-}가 과연 時相法上 어떤 時間의 關係를 지시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詳察과 檢證이 있을 문제지만, 그에 앞서 우선 {-ㄴ-}와 그것과 통합하는 어간의 의미특성과의 關係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가령, 모든 敘述動詞는 時制를 가지며 {-ㄴ-}가 그 時制法上的 P라는 素性을 指標한다고 想定할 경우, {-ㄴ-}의 介在與否가 [±P]를 辨別하는 原因因子가 됨은 물론이다. 그런데 동사 가운데 어느 語類(狀態動詞)는 {-ㄴ-}와 통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語類는 P의 素性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ㄴ-}가 없어도 {-ㄴ-}의 固有素性인 P를 時制範疇로 갖는다면, 그것은 매우 異例的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시말해서 종래, 동사는 {-ㄴ-}, 형용사는 {-ㅁ-}로 現在 時制를 나타낸다는 기술이 바로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다.

이와같은 意味·形態의인 차등이 일반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직 時制 자체에다가 準據의 焦點을 두고 본다면, 어떤 時制가 들, 또는 그 이상의 형태소와 相補的이라고 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時制가 동사와 형용사에 있어 각각 다른 二元的 體系를 가진 문법이 아니라면 가령, 동사의 現在時制와 형용사의 現在時制가 다를 리도 없겠지만, 달라서도 안 될 것이다. 하물며 過去, 未來 따위는 같은데 現在만이 다르다고 할 경우 여기 어떤 合理性이 부여될지 의문이다. 단순히 동사의 現在는 {-ㄴ-}, 형용사의 現在는 {-ㅁ-}가 각각 그들의 형태론적 표지가 된다는 기술은 얼핏 보기에 별 하자가 없는 듯하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同一

素性を 나타내는 데 各異한 형태론적 徵表를 취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석연한 설명을 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이 동사와 형용사의 屈折에서 보이는 범주적 특성이라 하여 당연시하는 경향이기도 하지만 동사와 형용사의 時制體系는 二元的이라 하든가, 아니면 {-ㄴ-}와 {-ㅅ-}는 同一素性的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 한, 이들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소박한 의문에 기초하는 假定이지만, 그러나 소홀히 목과해 버릴 수 없는 本質的인 문제를 示唆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동사는 {-ㄴ-}를 가진 體系고, 형용사는 {-ㄴ-}가 없는 체계라 하고 {-ㄴ-}가 '現在'의 指標일진대 그것은 결국 '現在'를 가진 체계와 '現在'가 없는 체계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當爲性에 근거하는 것이다.³⁶⁾

그러나, 이것은 형용사의 어떠한 특성으로도 正當化할 수 없다. 그것은 時制範疇나 體系의 有無의 문제까지도 威脅할 수 있는 核心的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現在'는 그 자체의 時點概念을 가질뿐만 아니라 모든 時間的 分割의 基準이 되어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對立의 관계에서 범주적인 체계를 엮을 수 있게 되므로 그것의 有無가 단순히 특정의 時點概念의 有無에 그치지 않음은 물론, 基準點이 없는 分割體가 체계의 개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평범한 論理다. 따라서 이 假定은 成立할 기반이 없다.

두번째의 假定은 動詞의 {-ㄴ-}와 형용사의 {-ㅅ-}는 서로 相補的 關係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즉 {-ㄴ-}가 [+現在]라면 {-ㅅ-}는 [-現在]이거나, {-ㅅ-}가 [+現在]라면 {-ㄴ-}는 [-現在]가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형태론적으로 無徵項이 有徵項에 우선하는 基準項이 되는 원칙에 따르면 동사든, 형용사든 現在時制는 {-ㅅ-}로 指標된다고 할 수 있다.

36) 이것은 적어도 一元的이든 二元的이든 같은 범주의 時點概念을 指標하는데 두 개의 형태소를 배당하는 일은 異例的이며, 국어의 現在指標는 {-ㄴ-}만의 固有素性이라는 前提로 한 것이다.

단약 이것이 적격하다면, {-ㄴ-}가 指標하는 것은 [±現在]의 時制에 관계된 資質이 아니라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ㄴ-}는 再檢될 충분한 이유를 가진다.

Ⅲ.2 이제 다시 動作動詞와 狀態動詞의 辨別資質과 이 {-ㄴ-}의 素性 문제를 연관시켜 그 대립의 자질로써 {-ㄴ-}의 素性を 이끌어내는 시도가 기대되는 契機에 이른 듯하다. 위의 分析表에서 우리는 {-ㄴ-}가 動作性 [活動性, 遂行性]에 단 關與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그것을 變化性의 문제에 透射했을 경우 동작동사와 상태동사가 [-變化]를 共通基盤으로 하면서 [-均質] 對 [+均質]의 對立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變化]는 당연히 [-均質]을 包含하기 때문에 결국 동작동사는 [-均質]의 資質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均質]에 {-ㄴ-}는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狀況의 質的인 斷面이 끊임없이 變移함을 뜻하며, 그러한 變移性和 {-ㄴ-}는 相關하는 반면, 同質狀況의 持續, 즉 [+均質], 다시말해서 狀態性과는 철저히 배타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動作性은 變化性和 겹치는 관계를 이루며 그렇기 때문에 「動作性(活動性·遂行性) 對 狀態性」의 대립으로 범주화되는 「動作動詞 對 狀態動詞」와 「變化性³⁷⁾ 對 不變性」은 等價關係에 있는 表裏의 문제지, 서로 無關한 별개의 성질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ㄴ-}의 時制性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ㄴ-}가 語幹을 制約하는 의미에만 焦點을 두고 거기에다가 [變化性]의 資質을 부여할 경우, {-ㄴ-}는 [+變化]((-均質)의 [-變化]까지를 포함하는)의 語幹만을 통합조건으로 한다는 規則을 얻게 된다.

37) [-變化] 중 [-均質]의 靜止的動作도 엄격한 의미에서 [+變化]의 資質을 가진 運動的動作에 준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며, 비록 [+變化]와 同質으로 同質關係에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變化의 內在性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느-}가 단순히 어간과의 呼應에 그칠 뿐, 적극적으로 어간에 관여하여 그 意味質의 變化를 誘發한다든가 하는 기능은 없다고 할런지 그 판단이 어렵다. 가령 다음과 같은 例文을 對比해 보기로 한다.

<14>-가) 經에 닐오디 菩薩入고해 無色界엿 좁을 마트시다 혼 말도 이 시며<月釋. 一, 36>

나) 乾闥婆는 좁내 말는다 혼 쁘더니<月釋. 一, 14>

가), 나)에서 각각 ‘말다’와 ‘말는다’가 가려지며, 이 兩項의 示差性(가)는 動作性만을, 그리고 나)는 그것에다가 變化性的의 資質이 追加되어 語彙意味의 變質을 誘導하는 데 {-느-}가 關與的인 가능성을 排除할 수 없다. 통상의 文에 가)의 ‘말다’形이 흔히 쓰이지 않는 이유도 實現되는 動作은 動作性的의 개념만이 아니라 그것의 [-均質]變化性이 주어짐으로써 구체적인 現實性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해명된다. 만약 종래의 기술대로 한다면 나)의 ‘말는다’는 現在時制일 것이나, 가)의 ‘말다’는 어떻게 설명될 것이며, 과연 가)와 나)에서 現在時制의 有無가 文法性으로 表出되어 각기 다른 文意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지 기묘성이 남는다.

특히 다음과 같은 特異한 用法은 으레 異例的인 變則으로 처리되던 것인데 오히려 적정한 規則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이른바 形용사어간과 {-느-}의 統合形이 그러하다.

<15>-i)가. 無盡意 술오샤디 심히 하이다(無盡意言^ㅎ샤디 ^甚多^ㅎ하이다)<法華. 七, 68>

나. 꽃 도코 여름 하느니(有灼其^實其^實)<龍歌. 2>

ii)가. 西水入^{마시} 저재 골하니(西水之^濟如^市之^歸)<龍歌. 6>

나. 하다가 變하야 업슬 째 이 마수미 거부비 터리와 툃기 셀왜 골느니(若變滅時^에 此心^이 則同^龜毛^兎角^{하느니})<楞嚴. 90>

iii)가. 巫峽엔 千山이 어드우니(巫峽千山^暗)<杜初. 八, 39>

나. 헉 불 마며 구루미 어듭느니(日明^하며 雲^暗하느니)<楞嚴. 四,

iv)가. 나드리 길어다(日月長)〈杜初. 十五, 23〉

나.菩提 | 나날 기는다 ㅎ야놀(菩提日日長이로다ㅎ야놀)〈六祖. 中, 111〉

v)가. 어미 몸 보아 시름 길거다〈月釋. 八, 87〉

나. 슬허 ㅎ요문 히로 다못 길는다(爲恨與年深)〈杜初. 十一, 10〉

vi)가. 天性은 불마시니(天性則明)〈龍歌. 71〉

나. 如意珠寶는 돌 업슨 바리 虛空에 돌면 그 나랏마자은 낫 마리 불느니라〈月釋. 一, 26〉

vii)가. 이 無ㄱ字에서 너므니 잇느니야 업스니아(過此無者아否아)〈蒙法. 62〉

나. 二禪天에서 므리 나아 아래 마독ㅎ엿다가 물도 업느니라〈月釋. 一, 49〉

가)와 나)의 對는 同一語幹의 活用形이 「{-φ-} 對 {-ㄴ-}」로 이루어져 상례를 크게 벗어난 用法을 보인 것이다. 그것은 물론 狀態動詞(形容詞)의 屈折法에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留意할 것은 이들의 對立의 示差性이 形態론적으로는 이와 同系의 것으로 보이는 <14>의 것, 즉 動作動詞(動詞)의 것과는 對比關係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14>의 것(動作動詞)들에서는 가)와 나), 「{-φ-} 對 {-ㄴ-}」가 時制性을 指標로 하는 對立이라고 할 여지가 전적으로 排除되지 않는 데 반해 <15>의 것(狀態動詞)들은 그럴 여지조차 없다. 이들의 關係를 종래의 기준을 기초로 하여 假定한다면, <14>의 것은 「中立時(φ) 對 現在時(ㄴ)」로, <15>는 狀態動詞의 現在時는 {-φ-}로 指標를 삼는 原則에 따라 「現在時(φ) 對 ?(ㄴ)」가 된다.

動詞 \ 語尾	가) : {-φ-}	나) : {-ㄴ-}
<14> : 動作動詞	中立時 (?)	現在時
<15> : 狀態動詞	現在時	?

그리고, <14>의 {-ㄴ-}와 어간의 통합은 開放的이나, <15>는 매우 閉鎖

의이다. 다시 <15>의 문제로 돌아와 보면, 이들이 극히 閉鎖된 어휘항목에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用例가 零星한 것도 사실이지만 {-ㄴ-}의 素性記述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端緒가 되기에 충분하다. 가령, ‘하이다’와 ‘하느니’의 對比에서 {-ㄴ-}를 現在時로 歪曲할 가능성은 없다. 혹시 이런 용법을 動作動詞化라는 轉用이나 派生으로 설명하려 한다면 그것 또한 造語法의 條理에 닿지 않기도 하지만, 그것은 더더욱 {-ㄴ-}로 하여금 時制範疇를 離脫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결과가 된다.

Ⅲ.3 이상의 사실들은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ㄴ-}의 素性は 일차적으로 動作意味의 資質에다가 [-均質]의 [變化性]을 指標하는 것이라는 근거를 한층 다지는 데 歸結하며, 이것과 時相法의 連繫與否는 含意의 문제로 2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하 ϕ -’와 ‘하 ㄴ- ’에서 본시 ‘하-’는 [狀態性]의 것으로 [+均質]의 不變性和 對應하여, 均質連續인 持續의 뜻을 가진 것인데, {-ㄴ-}의 관여에 따라 [-均質]의 變化性이 주어져 均質不連續인 繼續³⁸⁾의 資質을 取得하게 된 것이 ‘하 ㄴ- ’다. 그러므로 {-ㄴ-}를 現在時나 또는 進行이니 하더라도 일부 容或無怪한 측면을 보이는 이유도 이러한 의미특질에 근거하는 것이지, {-ㄴ-}의 固有素性 자체가 그러하다고 할 수는 없다. {-ㄴ-}의 고유한 素性的 資質은 [-均質]일 따름이다. 그러나, 이 [-均質]이 時相과 긴밀히 相關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다. 여기서 이들의 對立關係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ㄴ-}	對	{- ϕ -}
動 性		非 動 性
非狀態性		狀 態 性

38) ‘持續’과 구별하기 위한 뜻으로 쓴 用語다. ‘持續’은 狀況을 어떤 時點으로 잘라도 잘라낸 부분과 他의 부분의 質이 均一할 경우이며, 그것은 直線으로 圖示할 수 있다. 이에 반해, ‘繼續’은 어떤 狀況이 모두 均質의 瞬間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개의 等價性이 인정되는 點으로 되어 있어 規則 혹은 不規則한 不連續으로 圖示된다. 가령, ‘희다’(白)와 ‘자다’의 質的 차이와 같은 것이다.

變化性	不變性
非持續性	持續性
進行性	非進行性

非均質性	對	均質性
------	---	-----

Ⅲ.4 다음에 덧붙여 이 論據를 한층 다지기에 충분한 통합형으로 <4>에서 제기됐던 「-엿/엿-ㄴ-」가 있다.

<16>-i) 우리 道理의 닐며 물어듀미 오노나라 잇느니라<月釋. 二, 74>

ii) 당다이 이런 希有한 相을 보수바잇느니라<釋詳. 十三, 15>

iii) 長者 | 菩提樹 미희 드려다가 삼동내 버혀 더뎛느니라<月釋. 八, 102> 一切 프렛 드를 흥 드리 모도 자뎛느니라<金剛三. 二, 24>

iv) 麒麟은 도흥 샷기를 帶호얏느니라<杜初. 十六, 9> 닷량 금으로 메엿느니라(五兩金子甕의)<朴初, 上, 19>. 엇던 다스로 우리돌히 이제 드록 成佛 몬호얏느노(何故로 我等이 수不成佛고)<禪龜. 下, 43>

위의 例示는 이른바 過去時制 {-앗/엇-}이 겪은 史的 段階를 追跡하는데 도움이 되게 列舉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잇-」과의 統合原理로 통합된 {-ㄴ-}가 「-아/어~잇-」, 「-엿/엿-」, 「-앗/엇-」의 모든 變移段階³⁹⁾에서도 변함없이 關與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와같은 例證은 叙述動詞句 이외의 構成에서도 찾아질 蓋然性이 있으며, 그 하나로 「-아/어~잇는」, 「-엿/엿-는」, 「-앗/엇-는」⁴⁰⁾이 있음을 환

39) 이것은 상당한 質量的 논의가 있어야 할 比重 높은 과제다. 여기서는 그간의 成果를 集約하는데 그친다. 다만 이를 示唆하는 단적인 例로 「朴通事上」과 「朴通事諺解」를 對比한 다음 例를 들어 둔다. 오늘 다 청호야 잇느니라(今日都請下了)<朴初. 上, 65>=오늘 다 請호엿느니라<朴通. 上, 59>.

40) i) 現在는 現호야 잇는 劫이라<釋詳. 十三, 50>.

ii) 도흥 힘머글 가켓는 驚戒니<釋詳. 九, 6> 손 안렛는 썩 비를 뵈드르낫다 (廻舟客坐時)<杜初. 十五. 35>.

iii) 피뎛는 너추리 물곤 모술 뵈들엿도다(滋蔓迺清池)<杜初. 十五, 8> 래애 안갓는 사물의 손더 다 나사든<呂鄉. 41>.

기해 둔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의 焦點은 「{-았/었-} 對 {-ㄴ-}」를 「過去 對 現在」라고 하는 기술을 既定事實로 할 경우 어떠한 時制의 질서가 「{-았/었-ㄴ-}」에서 「過去-現在」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데 있다. 만약 이것이 모순이라면 당연히 그 先行段階의 統合論理에도 이 모순성은 有效했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ㄴ-}를 단순하게 ‘現在’로 기술하는 데는 많은 非理를 自招할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길은 {-았/었-}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ㄴ-}=現在時制」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데 있으며, 그것이 歸結되는 바도 {-ㄴ-}는 [-均質], 즉 ‘均質不連續의인 繼續’을 實質이라고 함으로써 合理性을 획득하게 된다.

IV

Ⅳ.0 국어 時相法의 秩序體系에 대한 논의는 그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또 상응하는 成果도 거두었으나, 아직도 그 모습이 확연하게 論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 거기에는 그만한 여러가지 복합된 錯綜性的의 難題들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時制와 相의 문제를 비롯하여 樣態나 叙法과의 交叉關係등 固有한 범주설정이나 그들이 대립하는 機制를 끌어내서 기술하기 어려운 本態의인 難解性을 미리부터 가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時相文法은 動詞句의 여러가지 遂行能力 중에서도 매우 큰 몫을 차지하기도 하거니와 그것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性質의 것으로든 필시 고유한 體系를 이루고 있을 蓋然的인 假說을 提起해 오고 있다. 本稿도 이 제기된 假說의 論證을 위한 시도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현대어가 빛고 있는 錯綜性的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도 그것에 先行하는 史的 段階의 것, 즉 近代나 中世의 時相文法의 모두를 걸러내는 일이 급하다고 인식되

어 계획된 작업이지만, 그 가운데 기초적인 일부의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친 것이 되었다.

그렇다고 할 때 시상문법의 體系가 導出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부분만을 論斷한다는 것은 本末이 顛倒되는 愚를 犯할 가능성을 자인하면서 위의 論旨를 集約하는 것으로 結論에 대신한다.

Ⅳ.1 時相法の 체계구성은 時間軸에 설정되는 基準時點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時間軸이 하나나 둘이나 하는 것도 체계의 基幹을 좌우하는 문제지만, 그것이 單元的이든 多元적이든 역시 그 軸위에서 分割된 對立時의 관계를 구성하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多元적인 체계라 하더라도 基準時點의 문제는 움직일 수 없다. 시제체계의 기준시점은 話者의 發話時(S)가 되며, 그 체계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deictic 관계의 集합이 된다. 좀더 엄밀하게 말해서 文에 관여하는 시간에는 이 發話時 이외에도 狀況時(E)와 觀察時(R)이 있어 이들의 관여에 따라 각 언어의 시상체계가 구성되고 그 특징이 지워지는 것이지만 이들의 관계에서 導出되는 기준시는 發話時=狀況時=觀察時가 되고 그것이 바로 現在時制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現在時制의 문제는 체계기술에 있어 모든 것에 우선하여 규정되어야 하는 기본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現在의 先語末語尾 {-ㄴ-}를 다시 吟味하게 되었고, 그것이 屈折體系內에서 어떠한 分布特質을 示顯하는지 統合과 選擇의 관계를 詳察하여 궁극적으로는 {-ㄴ-}의 形態論的 資質과 그 문법적인 범주의 素性を 析出하려고 시도하였다.

Ⅳ.2 그와같은 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集約된다.

- (1) {-ㄴ-}는 異形態를 허용치 않는 單一形의 先語末語尾다.
- (2) {-ㄴ-}는 前接語幹으로 動作動詞만을 취한다. 그것은 動作性으로 보아 活動性·遂行性的 것이며, 變化性으로 보아 [-均質]의 均質不連續의

인 繼續의 資質을 가지는 語彙範疇의 것이다.

(3) {-ㄴ-}은 다음과 같은 先語末語尾들과 統合關係를 이룬다.

「-을·시-(엿/엿) + {ㄴ} + 오/우·니·이·(스·소)-」

統合關係의 制約條件 중 同一範疇에 속하는 同族形態素의 重複에 대한 不容認性은 매우 엄격하다. 따라서 資料로부터 歸納된 이 선어말어미들은 최소한 {-ㄴ-}와는 同範疇의 同族關係에 있지 않다는 것을 걸러낼 수 있다. 그리하여 만약 {-ㄴ-}가 時相法의 어떤 項을 指標하는 형태소라면 이와 통합하는 이들은 時相法과 무관한 것이 된다.

(4) {-ㄴ-}은 다음의 先語末語尾들과는 選擇的 關係의 分布特性을 갖는다.

「-더/러·거/어(게·것) × {ㄴ} × 리·아/어·(애/에·엿/엇)·도/로(뚝)·노(눅)·다/라(닷/랏)·샷-」

選擇的關係에 있는 이들이 모두 배타적이어서 한 動詞句속에 共存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필연적으로 同範疇의 形態소라야 하는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ㄴ-}를 포함하는 체계가 있고, 따라서 그것과 同範疇 관계에 있는 同族形態素가 있다면, 적어도 이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것은 {-ㄴ-}와 꼭 같은 座標點에서 선택되는 것일 때 그 系列性이 한층 提高된다고 하겠으나, 이들 중 어느 것도 {-ㄴ-}와 同位置에서 선택되는 관계를 이루지는 않는다.

이와같은 分布의 특성이 {-ㄴ-} 자체의 문제와 함께 {-ㄴ-}를 內在項으로 하는 체계의 究明에 可否를 가늠하는 조건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본성격을 이루는 체계의 구조원리에 깊숙히 관여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先語末語尾列上的 順位와 그들의 범주적 離合의 有關性문제나, {-ㄴ-}와 선택적관계에 있는 각 어미들의 座標가 모두 檢出되어 밝혀져야 그 歸趣가 들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留保로 돌린다.

(5) 統合과 選擇의 두 軸이 交叉하는 基準點을 {-ㄴ-}로 하는 先語末語尾들의 分布座標는 다음과 같이 總括된다.

	Y軸(選擇的)	
	더/러	
	저/어(게·것)	
을 시 [옛/옛]	는 오/우 너 이 [스·소]	X軸(統合的)
	리	
	아/어(애·에·옛/옛)	
	도/로(뚝)	
	노(놋)	
	다/라(닷/랏)	
	삿	

(6) {-ㄴ-}의 素性を 일반적으로 동사의 現在時制로 기술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고 소박한 다음과 같은 의문에 직면한다. 국어의 時制는 動作動詞(動詞)와 狀態動詞(形容詞)가 각각 달라야 하며, 과연 다른 것인가? 같으나, 다만 그것을 指標하고 형태만 다른 것인가?...

이러한 의문만으로도 {-ㄴ-}의 문제는 특이하다. 이와같은 特異性은 결국 {-ㄴ-}가 統合을 용인하는 語幹과의 相도 制約性的의 문제가 된다. 즉, 그 어간의 意味資質과 {-ㄴ-}의 素性間에 불가분의 緊密性이 內在했을 蓋然性を 注視할 수 있는 것이다.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는 ‘動作性’(活動性·遂行性)과 ‘狀態性’에 있어 辨別된다. 이러한 辨別에다가 다시 ‘變化性’을 투사하여 [-均質]의 [-變化]까지를 含意하는 [+變化], 즉 이것을 ‘變化性’이라 하고 [+均質]의 [-變化]만을 ‘不變性’이라 한다면, {-ㄴ-}는 이 ‘變化性’에만 關與한다는 規則의 기술이 가능하다. 즉 이 ‘變化性’은 均質不連續인 繼續이라고 해석되고 {-ㄴ-}와 時制의 관계는 아직 留保된 궁극의 문제지만, 그 與否에 앞서 {-ㄴ-}의 素性を 이루는 原子論的인 資質因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抽出된다.

{-ㅓ-}	對	{-ϕ-}
非均質性		均質性
非持續性(繼續性)		持續性
進行性		非進行性
變化性		不變性
動性		狀態性

參 考 文 獻

- 高永根(1981) : 中世國語의 時相과 叙法, 塔出版社.
 李智涼(1982) : 現代國語의 時制形態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51.
 韓東完(1984) : 現代國語時制의 體系的 研究(西江大 碩士論文).
 許 雄(1975) :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Comrie, B. (1976) : Aspect, Cambridge Univ. Press.
 Harris, Z.S. (1951) :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Univ. of Chicago Press.
 Koschmieder, E. (1974) : 'Studien zum Slavischen Verbalaspekt', der Englische Aspekt. ed. Schopf, A.
 Lyons, J. (1977) : Semantics 2, Cambridge Univ. Press.
 Mourelastos, A.P.D. (1981) : Events, Processes, and States; Syntax and Semantics 14, 191-212.
 Reichenbach, H. (1947) : Elements of Symbolic Logic, The Free Press, N.Y.

資料文獻 略語

- 〈訓諺〉 : 訓民正音諺解
 〈龍歌〉 : 龍飛御天歌
 〈月印〉 : 月印千江之曲
 〈月釋〉 : 月印釋譜
 〈釋詳〉 : 釋譜詳節
 〈楞嚴〉 : 楞嚴經諺解
 〈法華〉 : 法華經諺解
 〈杜初〉 : 杜詩諺解初刊本

- 〈杜重〉：杜詩諺解重刊本
- 〈金剛三〉：金剛經三家解
- 〈六祖〉：六祖法寶壇經諺解
- 〈圓覺〉：圓覺經諺解
- 〈卍小〉：翻譯小學
- 〈老初〉：老乞大初刊本
- 〈老諺〉：老乞大諺解
- 〈朴初〉：翻譯朴通事
- 〈朴諺〉：朴通事諺解
- 〈呂鄉〉：呂氏鄉約諺解
- 〈蒙法〉：蒙山法語諺解
- 〈內訓〉：內訓諺解